

투데이 칼럼

언론의 시대적 소임과 역할 모르는 불안해경!

치열한 경쟁사회에 있어 소용의 통로와 도구로서 시대적 소임과 역할을 엄숙히 수행하고 있는 언론의 종사자들은, 정권의 감시자와 사회의 목탁(木鐸)으로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비판정신의 주체로 자부심 하나로 언론에 몸담아 왔다.

최근 필자는 부안해양경찰서 홍보담당자로부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들었다. 홍보담당 A씨는 "보도자료가 한 건이나 두 건밖에 (필자 신문에) 안 실려 미흡하다. 예산도 줄어들어 신문을 끊어주세요."는 황당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아무리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한 신문사라지만 단 한 부 신문을 구독하는 부안해양경찰서 홍보담당 언론인이 이 정도인가 서글픔을 금할 수 없었다.

부안 해경 홈페이지를 보자. "부안 해경은 첫째, 신속한 상황처리로 골든타임을 지키고, 둘째, 양질의 해양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기르며, 셋째,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해양안전사고와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날로 변해가는 해양안보에 발맞추어 부안 해경 전 직원이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 실현을 위해 오늘도

달려가겠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진심어린 말씀 귀담아 듣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안을 중심부에 위치한 부안 해경은 여수·완도·목포·군산해경과 함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산하 5개 해경 중의 하나로 2016년 4월 개청했다. 전국에서 18번째이고 도내에서는 군산해경에 이어 두 번째다. 기획은 영과와 경비구조과, 해양안전과 등 6개 과에 3개 파출소를 거느린 부안해경은 전북해역 남단, 부안과 고창 해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해양안전 사고 및 오염 등을 처리하는 바다의 파수꾼'으로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산하에 의무경찰 등 경찰관 2백여 명이 근무한다. 과거 군산해경이 맡아온 관할해역 가운데 새만금 가력도에서부터 부

안군 위도, 고창군까지 전복면적 70%에 이르는 5733㎢를 인계받아 맡아 왔다.

과거 부안에는 서해해피호 침몰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한 가슴 아픈 지역이기도 하고, 수많은 섬과 관공지, 여객선과 어선 등이 많아 어민과 도주민은 물론 지역민들이 부안해경에 거는 기대감을 날로 증대된다. 특히 가력도 배수갑문, 여객선터미널, 서남해상풍력단지, 각종 어항 등 중요시설이 가동되거나 신설 지역으로 해양사고, 해양범죄, 불법어업 등의 치안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지역이다.

새만금 내부에도 많은 합법 및 불법어선과 폐선 등이 적지 않다.

특히 해양사고는 세월호처럼 대형 인명사고 발생할 수 있고, 충돌이나 침몰에 의한 선박사고로 태안 원유오염 같은 해양오염 사고도 발

생할 수 있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업무에 종사하는 해경 직원들의 현장에서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때문에 지역언론에서도 이러한 해경의 활약상과 미담 등의 보도자료를 지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게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비단 본인만이 아니다.

그런데 기껏 신문 한 부 본다고 언론인에 "보도자료가 자주 신문에 안 실려 신문구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부안해경의 언론관이 얼마나 심각히 왜곡됐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언론은 해경 뿐 아니라 지역 모든 기관과 사회단체 및 지역 발달도 기사로 쓰고 또한 이들의 문제점이나 잘잘못도 지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좋은 것, 입에 달콤한 기사만 무조건 게재하는 것이 신문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신문 지면에 한계도 있고, 지역에서 하루 언론인에 들어오는 보도자료만 수십 건이 넘어 다 실을 수 없는 저산 사정도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안해경 홍보담당자는 누구보다 언론인 사정을 잘 이해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준의 언론관을 보여 흡스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 옥 수
지방부안주재 국장

사설

군산 살리기 비상체제 돌입

정부가 군산 살리기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이 수석들과 보좌관들을 소집, 회의를 주재하며 첫 일선으로 "태스크 포스 가동 특단을 주문한 것이다. 문대통령은 범정부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는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만큼 군산의 몰락이 전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까지 인식될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지난 실 연휴 내내 군산 GM의 폐쇄 소식 때문에 도민 모두 심란해하며 고통했는데 정부의 대처에 기대를 걸고픈 오늘날이다.

전북도는 마음과 생각을 다 잡아야겠다. 군산 GM의 폐쇄로 난리가 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 발전은 경쟁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광역시도들도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각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지금의 사태 해결에 앞장 서야겠다.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제네럴모터스의 폐쇄 등 들리니 한숨을 쉴수록 찌벌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어찌됐는가. 도민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탈출을 감행한다면 몰라도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지역 경제를 살려내려 애쓰는 게 순리다. 본보가 어제도 말한 바 있거니와 전북도는 도민에게 용기와 위안의 근거가 돼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살리책 혼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지역의 낙후는 도민에게 아픔이 않은 상처의 정서로 작용되고 있다. 그런 데 실상가상으로 군산이 제대로 몰락한다면 그 충격은 감내하기가 어렵다. 전북도는 이번엔 정부를 상대로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 되는 일보다도 안 되는 일만 산적해 있는 지금 그것은 매우 절실하다.

전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할 말을 해야한다. 군산 경제의 몰락과 관련해서 지역의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도지사와 고위 브레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도지사와 브레인들은 이를 악물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경제 난국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돌파해야 한다. 전북도는 정부로부터 이번엔 쟁쟁하게 할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손에 쥐어지는 구체적인 그 무엇이다. 그것이 없다면 군산을 포함해 전북 지역 전체에 희망이 없다.

인구 감소 해결책을 찾아야

전북도는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인구 감소의 문제이다. 지난해 많은 인구가 줄었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재작년에는 전국에서 우리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제일 컸다. 전북도는 인구의 감소와 관련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있어선 곤란하다. 인구 감소 해결책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고민을 해보는데까지 해 봐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행정자치 연보의 내용을 보면 전북의 현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매년 전년에 비해서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게 역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의 발전같은 인구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그 약발이 미미한 게 큰 문제이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 이마를 짚어야 한다. 인구가 줄고 있음이 목도된 지 오래인데 혁신도시 발전 쪽에만 매달린 채로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전북이 늘고 가고 있다는 진단은 허튼 것이 아니다. 전북은 고령자들의 고장이 돼버렸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이만 늘고 있으니 지역의 현실이 딱하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분발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거창한 미래 비전 제시가 아니다.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가 훨씬 더 절실하다. 전북도는 먼 미래의 이상보다 오늘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 해결책을 내놓아야겠다. 그렇기 않으면 현재의 180만 명 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도 못 견딜 일인데 이번엔 제너럴 모터스까지 폐쇄 한다니 정신이 매우 사납다. 일자리 창출은 없고 남은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작금의 현실에 도민의 고민이 깊다. 이 한심스러운 사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년 인구의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 될 터이다. 전북도는 지금 떨치고 일어나 마땅하다.

독자제언

무차별 '신상 털기' 자제해야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상 털기'는 정말 무섭다. 당사자 뿐 아니라 당사자의 친구나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자기도 모르는 기록들 때문에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노출되고,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네티즌들은 비도덕적인 사람을 처단한다는 영웅 심리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먼저 정보를 찾는 데서 오는 쾌감과 과시욕구가 작용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신상 털기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알아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를 보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상 털기를 예방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네티즌들이 정보를 모으고 공개하는 개인신상정보는 상당부분 본인의 선택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노출된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미니홈피 등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웹사이트는 반드시 '비밀감' 설정을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예전 글은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SNS 페이지에서 함부로 단축 URL을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SNS나 온라인 게임,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고, 비밀번호는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으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와에도 여러 사이트의 ID를 통일해 사용하지 않고 각각 다르게 적용해 사용하며 자신의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쓴 ID나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않는 등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인터넷 이곳저곳에 남겨놓은 개인정보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한다. 김철호 원안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독자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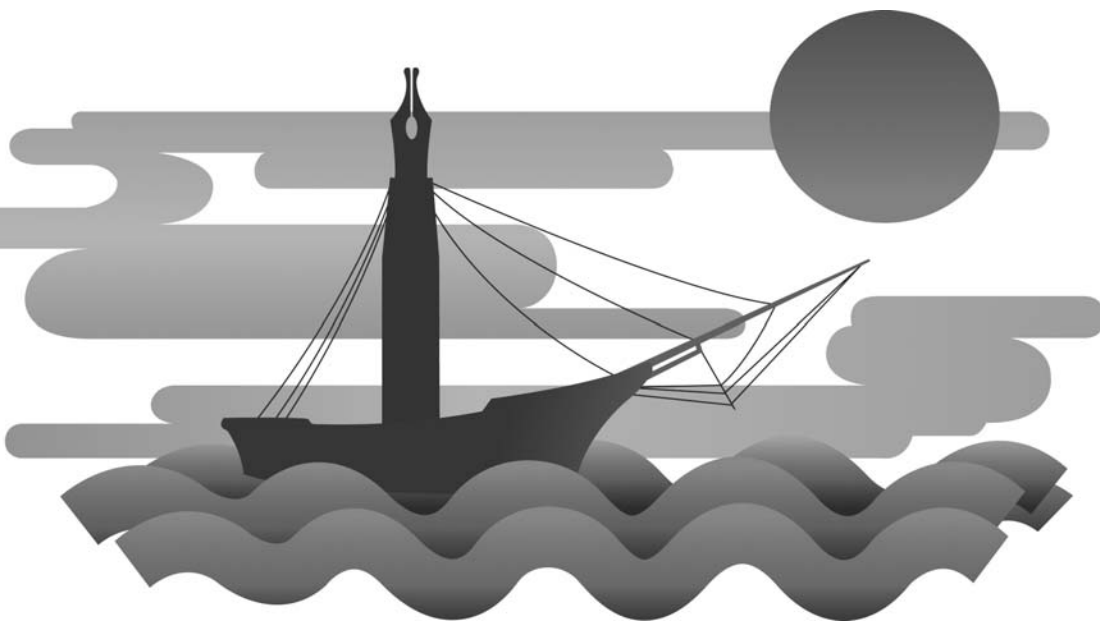
명절 후유증 이렇게 극복하세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설 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나면 크고 작은 후유증이 생긴다. 막히는 도로에서 장거리 운전이나 명절 음식장만 등으로 쌓인 육체적 피로와 명절을 보내면서 생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하루 빨리 명절 후유증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먼저, 충분한 휴식이다. 명절동안 쌓인 피로는 충분한 수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자려고 노력해보자.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도 좋다. 둘째, 운동이다.

충분한 수면과 더불어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은 문친 근육을 풀어주고 피로해소에 도움을 준다. 하루 30분 투자해 무너진 생체리듬을 되찾아보자. 셋째, 과일·채소 섭취이다. 명절 동안 기름진 음식으로 과식 및 과음한 분들 많을 것이다. 따라서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소화를 돕는 과일이나 채소 등으로 소식하는 것이 좋다. 즐겁게 연휴를 보내셨다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올 때이다. 모두들 명절 후유증 잘 극복해서 하루 빨리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면 한다. 최해진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사외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